

<第三回 研究發表會 發表論文>

레온티에프 體系の 生産函數 및 그의 動學體系에 關한 小考

都 禹 鉉

一. 序 論

「레온티에프」體系를 靜學 및 動學體系로 나누고 이것을 各各 開放 및 閉鎖의 二體系로 細分할 수 있을 것이다.

靜學體系에 있어서는 各 産業의 投資額을 算出하지 않으며 在庫純増 및 資本形成은 다만 하나의 列로서 다루어 지므로 各種의 財貨가 在庫의 純増 또는 資本蓄積을 위해서 販賣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産業에서 어느 産業으로 分配이 되는가는 分明치 않다.

그러므로 資本形成에 있어서 一部門의 生産物이 資本形成用으로 다른 部門에 販賣될 때에 어느 部門에 販賣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一列로 다루어진 資本形成部門을 여러가지 部門으로 細分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資本去來에 對한 部門分割 與否로 靜學 및 動學體系의 區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靜學體系에서는 投入係數가 中心的인 役割을 하는 것이나 動學體系는 資本係數의 導入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온티에프」體系는 그 體系가 體系內部的 相互關係에 의해서 決定할 수 없는 變數를 包含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各各 開放 및 閉鎖體系로 區分된다.

二. 「레온티에프」의 生産函數

x 를 投入量 곧 要素의 使用量, y 를 產出量 곧 財의 生産量이라고 하면 變數는 모두 正이든가 또는 非負이다. 그러면 生産技術의 定式化인 企業의 生産函數는

$$f(x_1, x_2, \dots, x_n, y_1, y_2, \dots, y_n) = 0 \dots \dots \dots (1)$$

일 것이다.

그러나 現實 世界의 技術의 條件은 그야말로 各樣 各色이므로 分析을 위한 數學의 定式化에 있어서는 投入量과 產出量이 連續의으로 變化한다든가 또는 連續

的으로 代替可能하다 든가 하는 明示的인 假定을 前提로한 單純化의 過程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定式化는 어디까지나 現實에 對한 近似的인 問題로 보아야 할 것이다.

問題의 簡潔을 위해서 一生産物, 二要素인 境遇의 生産函數를 보기로 들겠다.

二産業 一家計의 「페온티에푸」體系에 있어서 X_1 및 X_2 를 各各 第一財 및 第二財 産業의 產出量, X_3 을 家計의 生産要素(勞動用役) 提供量, x_{rs} , $\left(\begin{smallmatrix} r=1, 2, 3 \\ s=1, 2 \end{smallmatrix}\right)$ 를 第 r 財 産業의 第 s 財産業에 對한 配分量, K_1 및 K_2 를 家計의 第一財 및 第二財의 購入量으로 하고 K_3 을 無視하면

$$\begin{aligned} X_1 &= x_{11} + x_{12} + K_1 \\ X_2 &= x_{21} + x_{22} + K_2 \dots\dots\dots(2) \\ X_3 &= x_{31} + x_{32} \end{aligned}$$

이 얻어진다

그런데 投入係數 a_{rs} , $a_{rs} = \frac{x_{rs}}{X_s}$ $\left(\begin{smallmatrix} r=1, 2, 3 \\ s=1, 2 \end{smallmatrix}\right)$ 로 하면 (2)는

$$\begin{aligned} X_1 &= a_{11}X_1 + a_{12}X_2 + K_1 \\ X_2 &= a_{21}X_1 + a_{22}X_2 + K_2 \dots\dots\dots(3) \\ X_3 &= a_{31}X_1 + a_{31}X_2 \end{aligned}$$

로 된다.

(2)의 第一列 및 第二列은 各各 第一財 및 第二財産業의 生産要素量이므로 다음과 같은 生産函數가 얻어진다.

$$\begin{aligned} X_1 &= F_1(x_{11}, x_{21}, x_{31}) \dots\dots\dots(4) \\ X_2 &= F_2(x_{12}, x_{22}, x_{32}) \end{aligned}$$

第一財産業의 生産函數 $X_1 = F_1(x_{11}, x_{21}, x_{31})$ 에서 다른 要因을 Parameter로 보고

$$X_1 = f(x_{21}, x_{31}) \dots\dots\dots(5)$$

로 하면 앞서 말한 一生産物 二要素의 單純한 生産函數가 얻어지며 이것으로써 生産函數에 關한 問題의 追求가 보다 쉽게 될 것이다.

「페온티에푸」體系의 特徵인 投入係數 一定의 問題를 다루기에 앞서 보다 一般의인 生産函數의 境遇를 考察키로 한다. 生産函數 $X_1 = f(x_{21}, x_{31})$ 의

連續的인 偏導函數

$$\frac{\partial X_1}{\partial x_{21}} = f_{x_{21}}(x_{21}, x_{31}), \quad \frac{\partial X_1}{\partial x_{31}} = f_{x_{31}}(x_{21}, x_{31})$$

는 各各 生産要素量 x_{21} 및 x_{31} 의 限界生産物이다.

規模에 關한 收益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要素를 一定比 $a_{21}:a_{31}$ 로 하고

$$X_1 = f(\lambda a_{21}, \lambda a_{31}) = \phi(\lambda) \dots\dots\dots(6)$$

로 하면 된다.

여기에서 變數 λ 가 生産規模를 決定한다. λ 에 關한 函數 X_1 의 導函數 $\frac{dX_1}{d\lambda}$ 가

不變이면 產出量 X_1 이 要素의 使用量에 比例하여 增大하며 이것이 規模에 關한 收益不變의 境遇인 것이다. (6)에서 變數 λ 가 增大할 때 函數 X_1 의 λ 에 關한 導函數 $\frac{dX_1}{d\lambda}$ 가 增大 또는 減少하면 X_1 은 λ 에 關한 增加 또는 減少函數 이므로 이것이 곧 規模에 關한 收益可變의 境遇인 것이다.

生産函數 $X_1=f(x_{21}, x_{31})$ 은 二變數 函數이며 이것은 한 曲面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곧 立體解析幾何에 있어서와 같이 X_1, x_{21}, x_{31} 를 直交座標로 보아서 얻는 方程式 $X_1=f(x_{21}, x_{31})$ 의 軌跡이다 이 曲面은 二變數函數 $f(x_{21}, x_{31})$ 의 그림포다

이것은 또한 X_1 의 여러가지 固定된 값 $X^{(1)}_1, X^{(2)}_1, X^{(3)}_1$ 에 對한

$$X^{(1)}_1=f(x_{21}, x_{31}), X^{(2)}_1=f(x_{21}, x_{31}), \dots$$

을 滿足하는 x_{21}, x_{31} 의 軌跡인 要素平面 $Ox_{21}x_{31}$ 위의 等量曲線(生産無差別曲線)으로 投影하여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X_1=f(x_{21}, x_{31})$ 가 r 次の 同次函數일 境遇에는

$$f(\lambda x_{21}, \lambda x_{31})=\lambda^r f(x_{21}, x_{31})$$

이므로 要素量 x_{21} 및 x_{31} 의 同一比率 λ 로서의 增加는 產出量 X_1 의 λ^r 인 比率의 增加를 가져온다.

$r=1$ 일 때 곧 生産函數가 線形同次函數일 境遇에는 (x_{21}, x_{31}) 인 어떤點에 關하여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값이든 λ 의 모든 값에 對하여

$$f(\lambda x_{21}, \lambda x_{31})=Xf(x_{21}, x_{31})$$

이다.

P 가 線形同次函數를 表示하는 曲面위의 所與의 點이면 P 의 座標에 比例의인 座標의 어떤 點도 그 曲面위에 있다.

點 (X_1, x_{21}, x_{31}) , $(\frac{1}{2}X_1, \frac{1}{2}x_{21}, \frac{1}{2}x_{31})$, 및 $(2X_1, 2x_{21}, 2x_{31})$ 는 그중의 一點이 그 曲面 위에 있으면 모든 點이 그 曲面위에 있다. 그런데 이性質을 갖는 모든 點은 原點을 所與의 點 P 을 連結하는 直線 OP 위에 있을 것이다.

第一圖에 있어서 $X_1=f(x_{21}, x_{31})$,

$dX_1=fx_{21} dx_{21}+fx_{31} dx_{31}$ X_1 가 一定한 값을 가지면 $O=fx_{21} dx_{21}+fx_{31} dx_{31}$ 그러므로 $\frac{dx_{31}}{dx_{21}}=-\frac{fx_{21}}{fx_{31}}$ 이다. 이것은 函數 $X_1=f(x_{21}, x_{31})$ 에 있어서 X_1 이 特定の 값을 갖는 境遇의 等量曲線 $f(x_{21}, x_{31})$ 의 어떤 點 (x_{21}, x_{31}) 에 있어서의 切線의 x_{21} 軸에 對한 기울기다.

原點을 通過하는 直線 OP 위의 點을 $P^{(1)}(x^{(1)}_{21}, x^{(1)}_{31}), P^{(2)}(x^{(2)}_{21}, x^{(2)}_{31}), \dots$ 라 하고 λ 가 任意的 常數이면

$x^{(2)}_{31}=\lambda x^{(1)}_{31}, x^{(2)}_{21}=\lambda x^{(1)}_{21}$ 가 成立할 것이다. 그런데 $P^{(1)}(x^{(1)}_{21}, x^{(1)}_{31})$ 에 있어서의 切線의 기울기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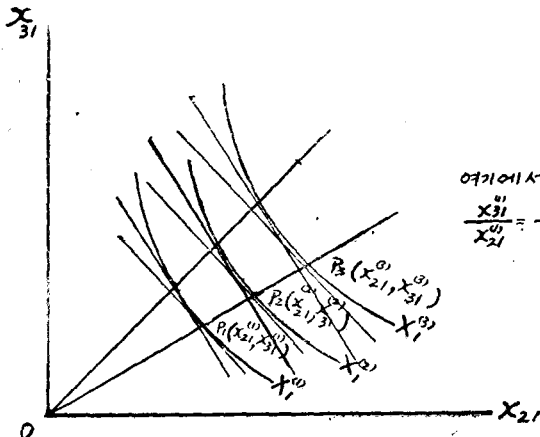
$$\frac{dx^{(1)}_{31}}{dx^{(1)}_{21}}=-\frac{fx^{(1)}_{21}}{fx^{(1)}_{31}}$$

$\frac{dx_{31}^{(2)}}{dx_{21}^{(2)}} = -\frac{fx_{31}^{(2)}}{fx_{21}^{(2)}} = -\frac{\lambda fx_{31}^{(1)}}{\lambda fx_{21}^{(1)}} = -\frac{fx_{31}^{(1)}}{fx_{21}^{(1)}} (\because x_{31}^{(2)} = \lambda x_{31}^{(1)}, x_{21}^{(2)} = \lambda x_{21}^{(1)})$
따라서 $\frac{dx_{31}^{(1)}}{dx_{21}^{(1)}} = \frac{dx_{31}^{(2)}}{dx_{21}^{(2)}}$ 곧 點 $P^{(1)}(x_{21}^{(1)}, x_{31}^{(1)})$ 및 $P^{(2)}(x_{21}^{(2)}, x_{31}^{(2)})$ 에 있어서의 切線의 기울기는 같다.

그러므로 第一圖에서 原點을 通過하는 任意的 直線과 等量曲線과의 交點에 있어서 切線은 모두 平行할 것이다. 線形同次生産函數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線形同次函數의 性質에 의하여 모든 生産要素의 比例的 增大는 生産物의 比例的 增大를 가져오며 使用되는 各 生産要素의 相對的 數量만이 重要な 것이고 實際의 生産規模가 問題로 되지 않는 生産規模에 對한 收益不變의 境遇임을 알 수 있다.

上述한 바는 하나의 生産物이 生産될 境遇 生産要素가 連續적으로 代替可能하다는 것을 假定하였으나 固定된 技術係數를 前提로 하지 않는 보다 一般的인 生産函數의 境遇였다. 그런데 技術係數가 一定한 것을 假定하는 「레온티에프」體系는 生産函數 $X_1 = f(x_{21}, x_{31})$ 에 있어서 投入物이 $x_{31}:x_{21} = a_{31}:a_{21}$ ((2), (3) 参照)인 一定比로 使用되고 다른 比率로서는 使用되지 않는 特殊한 形態일 것이다.

이것을 圖表로써 說明하면 第二圖에서 $x_{31}^{(1)}:x_{21}^{(1)} = a_{31}:a_{21}$ 가 一定인 境遇 곧 點 P_1 의 座標의 比가 $a_{31}:a_{21}$ 일 때 OP_1 를 通過하는 直線위에 있는 點만이 $x_{31}:x_{21} = a_{31}:a_{21}$ 의 關係를 滿足할 것이다. 第二圖에서 點 C 가 表示하는 生産要素量 x_{21} 및 x_{31} 의 한 組合으로 주어졌을 때 P_3 을 達成하려면 第二財가 CP_3 만큼 不足하다. 그런데 第二財 및 第三財의 組合의 比는 一定하므로 OP 線 위에 있는 點 P_1 를 採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二財는 完全히 使用되지 않은 第三財는 P_1C 만큼 남게 된다. 그러므로 C 는 P_1 과 等量의 X_1 을 生産하는 投入量의 組合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여기에서

$$\frac{x_{31}^{(1)}}{x_{21}^{(1)}} = \frac{x_{31}^{(2)}}{x_{21}^{(2)}} = \frac{x_{31}^{(3)}}{x_{21}^{(3)}} = \dots$$

圖 1

여기 이 경우에 있어서는 等量曲線(生産無差別曲線)은 第二圖와 같은 L字型이 될 것이다.

三. 「레온티에프」의 動學體系

「레온티에프」體系의 動學化는 產出量과 資本 stock 또는 產出量의 變化와 投資의 關係인 加速度 原理를 利用하면 된다.

곧 加速度因子的 定數로 解釋되는 資本係數行列이 그의 靜學體系에 追加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다. 經濟의 flow의 構造를 表示하는 一定한 投入—產出係數 a_{rs} , ($r, s=1, 2, \dots, n$)를 要素로 하는 投入係數行列 $A^0=[a_{rs}]$, 經濟의 資本構造를 表示하는 資本係數 b_{rs} , ($r, s=1, 2, \dots, n$)를 要素로 하는 資本係數行列을 $B=[b_{rs}]$, X 를 產出高 vector, S 를 各財貨의 資本 stock의 vector, K 를 最終需要 vector, 生産條件을 表示하는 技術行列 $A=I-A^0$, $I=[\delta_{rs}]$ ($r, s=1, 2, \dots, n$)인 單位行列 δ_{rs} 는 Kronecker's delta이다. >로 하면 動學體系는

$$X=A^0 X+B\dot{X}+K=A^0 X+B \frac{dX}{dt}+K \dots \dots \dots (7)$$

로 된다.

여기서 $\dot{X}=\frac{dX}{dt}=\left\{\frac{dX_r}{dt}\right\}$ ($r=1, 2, \dots, n$)는 產出量의 變化率의 列 vector이다.

閉鎖體系에 있어서는 n 番제의 産業은 家計로서 消費財를 投入하여 勞動用役을 產出한다 (7) 에서 K 를 除外한 것으로 表示된다. 곧

$$X=A^0 X+B\dot{X} \dots \dots \dots (8)$$

이것은 또한

$$X-A^0 X=B\dot{X}, IX-A^0 X=BX, (I-A^0)X=B\dot{X} \dots \dots \dots (9)$$

$A=I-A^0$ 이므로 (9)는

$$AX=B\dot{X} \text{ 또는 } AX=B \frac{dX}{dt} \dots \dots \dots (10)$$

(10)은 一階一次(線型) 微分方程式體系이다.

(10)의 特殊解를 求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놓는다.

$$X=Ke^{-\rho t} \dots \dots \dots (11)$$

여기서 $K=\{kr\}$ 는 定數의 列 vector이다. ρ 는 解를 決定하며 求하려는 scalar이

다.

$$\frac{dX}{dt} = \frac{d}{dt}(Ke^{-\rho t}) = K \frac{d}{dt}(e^{-\rho t}) = K \cdot \log e^{-\rho} \cdot e^{-\rho t} = K \cdot (-\rho) \cdot e^{-\rho t} = -K\rho e^{-\rho t} \quad (12)$$

(11) 및 (12)를 微分方程式體系 (10)에 代入하고 $e^{-\rho t}$ 로 約하면

$$AK = -\rho BK$$

$$AK + \rho BK = (A + \rho B)K = 0 \dots \dots \dots (13)$$

行列 $(A + \rho B)$ 는

$$A + \rho B = \begin{pmatrix} 1 + \rho b_{11} & -a_{12} + \rho b_{12} & \dots & -a_{1n} + \rho b_{1n} \\ -a_{21} + \rho b_{21} & 1 + \rho b_{22} & \dots & -a_{2n} + \rho b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_{n1} + \rho b_{n1} & -a_{n2} + \rho b_{n2} & \dots & 1 + \rho b_{nn} \end{pmatrix} \dots \dots \dots (14)$$

條件 (13)에 있어서 行列 A 및 行列 B 의 次數는 各各 $n \times n$ 次이며 ρ 는 scalar이므로 scalar ρ 와의 積 ρB 도 역시 $n \times n$ 次의 行列이다.

따라서 行列 A 및 ρB 의 和인 行列도 $n \times n$ 次 이고 K 는 $n \times 1$ 次의 列 vector이므로 서로 適合하며 乘法이 可能하다. 따라서 그 積인 行列 $(A + \rho B)K$ 는 $n \times 1$ 次의 列 vector이다. 그리고 (13)에 依하여 $(A + \rho B)K = 0$ 이므로 n 次인 列 vector $(A + \rho B)K$ 의 各 要素는 零과 같으므로 n 個의 方程式이 成立한다. 그러므로 ρ 및 K 의 要素의 比를 決定하는데 充分하다.

(14)는 行列 $A = [a_{rs}]$ ($r, s = 1, 2, \dots, n$)인 正方行列 A 의 特性(固有)行列 $A - \rho I$ 의 一般化된 形式이다. 그런데 $I = [\delta_{rs}]$ ($r, s = 1, 2, \dots, n$), δ_{rs} 는 Kronecker's delta이다.

여기에서 理解를 돕기 위해서 行列의 特性 또는 固有方程式에 關한 說明을 添加하기로 한다.

A 가 $n \times n$ 次의 正方行列이면

$$A - \rho I = [a_{rs} - \delta_{rs}\rho] = \begin{pmatrix} a_{11} - \rho & a_{12} & \dots & a_{1n} \\ a_{21} & a_{22} - \rho & \dots & a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_{n1} & a_{n2} & \dots & a_{nn} - \rho \end{pmatrix}$$

의 行列式 $|A - \rho I| = |a_{rs} - \delta_{rs}\rho|$ 를 完全히 展開하면 ρ 에 關한 n 次의 多項式으로 되고 이 多項式的 第一項은 $(-1)^n \rho^n$, 最後의 項은 定數項인 行列 A 의 行列式 $|A|$ 임을 알수 있다 $|A - \rho I| = |a_{rs} - \delta_{rs}\rho| = 0$ 를 正方行列 A 의 特性 또는 固有方程式이라고 한다. 이것은 n 次이므로 ρ 에 關한 n 個의 根을 가지며 이것이 곧 行列 A 의 固有根인 것이다. 여기에서 最後의 項이 定數인 $|A|$ 이며 이것은 n 個의 特性根의 積 $\rho_1 \cdot \rho_2 \dots \rho_n$ 와 같으므로 $|A| \neq 0$ 이면 特性根은 모두가 零이 아님은 明白하다. 行列 A 가 變則(特異)이면 $|A| = 0$ 이므로 적어도 하나의 根은 零일 것이다. 여기서는 A 가 正方行列인 경우였으나 正方行列의 特殊한 例인 $A = [a_{rs}]$ ($r, s = 1, 2, \dots, n$)에서 $a_{rs} = a_{sr}$ 곧 A 가 對稱行列이면 行列 $A - \rho I$ 의 行列式 $|A - \rho I| =$

$|a_{rs} - \delta_{rs}\rho| = (\rho_1 - \rho)(\rho_2 - \rho) \cdots (\rho_n - \rho) = \phi(\rho)$ 임이 證明된다. 곧 이것은 ρ 에 關한 n 次の 多項式이며 $\phi(\rho)$ 는 對稱行列 A 의 固有函數. $\phi(\rho) = 0$ 는 A 의 固有(特性)方程式이다. 이 方程式은 ρ 에 關한 n 次の 方程式이며 이 方程式은 n 個의 根 $\rho_1, \rho_2, \dots, \rho_n$ 을 가진다. 이 根이 앞서 말한바와 같은 對稱行列 A 의 固有(特性)根이다. (高木貞治著, 代數學講義 pp. 388—389 參照)

그런데 (13)에 있어서 列 vector $K = \{k_r\}$ ($r=1, 2, \dots, n$)의 要素 K_r 는 모두가 零은 아니다. 따라서 行列 $A + \rho B$ 의 行列式

$$|A + \rho B| = 0 \cdots \cdots \cdots (15)$$

이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ρ 에 關한 n 次の 方程式이다. ρ 의 係數는 一定한 것으로 假定한 投入係數 및 資本係數에 依存함은 (15)에 의하여 明白하다. 方程式 (15)는 n 個의 根 $\rho_1, \rho_2, \dots, \rho_n$ 을 가지며 行列 A 및 B 는 對稱行列이 아닐 것이므로 그 根 ρ 가 모두 實數의 範圍內에 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根의 ρ 가 共軸複素根일 경우에는 產出量의 振動의 時間經路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根이 $\rho = \rho_s$ 일때 ρ_s 에 對應하는 k 의 任意의 特定된 組를 $K_s = \{k_{rs}\}$ 로 한다. 行列 $(A + \rho_s B)$ 의 行列式은 $|A + \rho_s B| = 0$ 이므로 行列 $(A + \rho_s B)$ 의 階數를 r 로 하면 $r < n$ 이다 곧 $(A + \rho_s B)$ 는 變則(特異)이다. 그러므로 階數를 $r = (n-1)$ 로 하면 方程式 $(A + \rho B)K = 0$ 는 $K = \{k_r\}$ 의 要素間의 比를 決定한다.

이렇게 하여 方程式 $AX = B\dot{X}$ 또는 $A\dot{X} = B\frac{dX}{dt}$ 의 하나의 解는

$$X = K_s e^{-\rho_s t}$$

로 된다. 그러므로 $(s=1, 2, \dots, n)$ 에 對應하는 n 個의 特殊解의 一次結合으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一般解를 얻는다.

$$X = \sum_{s=1}^n A_s K_s e^{-\rho_s t}$$

여기에서 A 는 初期條件에 의해서 決定되는 任意常數다

이 一般解에 있어서 ρ 의 값의 性質 곧 實數値를 갖느냐 또는 共軸複素數를 갖느냐에 따라서 產出量 X 의 時間的 經路에 있어서 그 運動의 形態가 決定될 것이다. (끝)